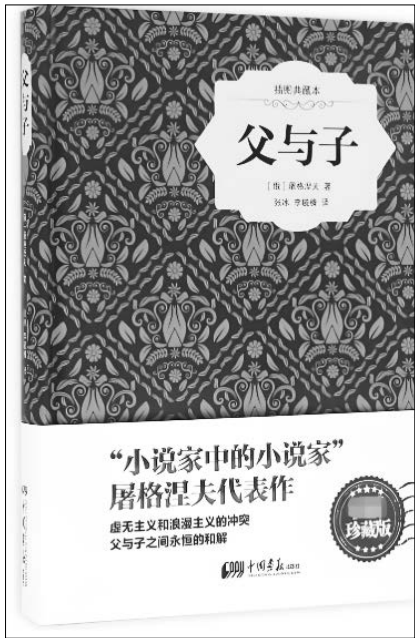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키워주는 것이다. 로씨야문학의 거장 이반 투르게네프가 1862년에 발표한 《아버지와 자식》을 읽으면서 더더욱 고전의 매력을 확신하게 되었다.

력사의 흐름과 함께 시대는 변혁하지만 인간의 삶은 여전히다. 작품은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간의 갈등, 신념과 가치관의 차이 등 오늘날 우리도 고뇌하는 보편적 과제를 다루어 더 많은 공감을 자아낸다.

작품은 19세기 로씨야 사회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펼쳐고 있다. 당시 로씨야는 서유럽의 정치체제와 문명을 접하며 과학과 이성 중심의 사고를 하기 시작했고 립헌군주제와 농노해방 등 새로운 자유주의적 개혁 주장으로 급격한 변화에 처해있었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 전통을 지키려는 아버지세대와 이를 거부하고 새로운 사상을 추

[독후감]

고전을 읽는 이유

《아버지와 자식》을 읽고서

구하는 자녀세대간의 갈등이 날카롭게 드러난다.

소설은 로씨야 귀족청년 아르카지가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 바자로프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아르카지의 친구 바자로프는 귀족계층과 전통을 비판하는 허무주의자 즉 니힐리스트였다. 그는 감성보다는 이성, 예술보다는 과학을 중요하게 여기며 신분제도와 귀족사회를 맹소적으로 바라본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그의 말처럼 과거의 권위와 관습은 전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아르카지의 큰아버지이며 보수적인 귀족인 파벨과의 충돌을 초래한다. 파벨은 명예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로 여러차례 바자로프와 날카로운 논쟁을 벌인다. 따라서 서로의 갈등은 깊어만 간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대립이 아닌 구세대와 신세대의 가치관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 뒤로 바자로프는 로씨야 상류층 여성 오진초바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에 대한 사랑을 느끼며 혼란에 빠진다. “나는 사랑같은 감정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자로프는 결국 자신의 신념과 어긋나는 사랑의 감정

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한다. 이상적인 가치관과 현실적인 사랑의 충돌은 동시에 그가 신봉하는 허무주의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모순에 빠져버린 바자로프는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고자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다. 실의의 시간 속에서 의로행위 과정에 생긴 의외의 감정으로 그는 목숨을 잃게 된다. 바자로프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 비극이 아닌 그 시대의 허무주의 사상이 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소멸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약은 쓰지만 삼켜야 하잖아... 우리 후계자들도 우리에게 ‘당신들은 우리 세대가 아닙니다. 약을 삼키세요.’라고 할 수 있어...”

아르카지의 아버지 니콜라이가 파벨에게 했던 이 말처럼 세대차는 반드시 인정해야만 한다. 인류의 역사 발전으로 보면 자식세대는 부모세대를 부정하면서 성장을 이룩하고 결국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들 역시 자식세대에 부정당하며 세상은 또다시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다.

책장을 덮으면서 지꽃게 내 머리를

파고드는 질문이 있었다.

“현시대의 우리는 세대 갈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것과 전통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대 갈등을 극복하려면 상대를 이해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일단 상대를 존중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평판의 까다로운 시선을 거두어내 진정한 경청의 자세를 취해보라. 미국의 전설적인 풋볼코치였던 아몬스 알론조스 테그는 “나는 우리 선수들을 모두 사랑하지만 모두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이고 사랑하는 것은 의지이자 결단이다.

마찬가지로 리해는 주관적인 감정이고 존중은 좀더 현실적인 결단이자 의지이다. 서로가 존중을 바탕으로 현실을 직시한다면 웃음대가 얻은 지혜와 신세대의 새로운 사상은 현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지혜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책은 세상을 기억한다.

책이 우리에게 남긴 것을 오래 기억하는 방법은 모여서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것이다.

© 박해연

디지털 시대

우리는 왜 여전히 도서관을 찾는가

디지털 시대, 손안의 휴대폰만 조작하면 수많은 책과 정보를 즉시 열람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을 통해 방대한 자료를 빠르게 검색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도서관을 찾을까? 오늘날 도서관의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크고 작은 스크린으로 책을 읽고 집에서도 클릭 한번으로 책을 살 수 있는 지금, 도서관은 과연 ‘구시대의 유물’이 된 걸까? 과연 도서관은 ‘필요한 공간’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을까?

2024년말 기준, 중국 전역에서는 총 3,248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중이며 리용자수는 연인수로 무려 13억명을 넘었다.

과거를 지키고 미래를 여는 공간, 연구하고 공유하는 지식의 장, 오늘날의 도서관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바 점점 더 많은 현대인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정보가 쏟아지는 디지털 시대에 도서관은 ‘선별된 지식’을 지향한다. 인공지능과 검색엔진이 방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도서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 전문인군 그리고 체계적 지식 가공의 기준과 경험은 대체 불가하다.

그런 점에서 도서관은 독자와 양질의 도서 사이를 잇는 중요한 ‘다리’이다.

절강성 Ningbo시의 천일각은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장서각(藏書樓)으로 400여년의 세월 동안 책향기를 간직한 채 문맥을 이어오고 있다. 중국의 장서 사업은 서원장서(書院藏書), 개인장서(私人藏書)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오다 근대에 이르러 공공도서관의 형태로 발전했고 새 중국 창건 이후에는 공공도서관 네트워크가 점차 체계화되었다.

오늘날 북경, 서안, 항주, 광둥 등지에는 ‘중화문화 유전자 보존기지’가 세워져있다. 중국국가판본관은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판본 자료를 영구 보존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도서관은 갑골문, 죽간·백서, 금석 탁본, 근현대 인쇄본과 신문, 구술사 음향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정성스럽게 보존하고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디지털의 파도 속에서도 문명의 맥박을 직접 느끼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수시로 열람 가능한 문명의 기록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 천일각에는 “분가해도 책을 나누지 않고 책은 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곳은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장서각’으로 대중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서관의 진화

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고대의 장서각에서 현대의 도서관으로, 단순한 ‘소장’ 중심에서 ‘활용’과 ‘봉사’의 중심으로,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한 기능 혁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변화는 공간의 진화일 뿐만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기도 하다.

백년 역사를 가진 국가도서관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과거 도서관 직원들이 하던 자료정리와 정보추출, 지식봉사 업무는 이제 인공지능이 초기처리 과정을 담당한다. 최근 시범 운영을 시작한 ‘중화고적 스마트화 봉사 플랫폼’은 독자들이 수천년의 역사를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한다. 새 기술은 도서관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그 가치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오늘날 도서관은 단순한 학습공간을 넘어 독서와 사회 교류, 예술과 과학이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는 ‘무로 휴양지’이자 ‘지식 충전소’이고 도시의 ‘문화거실’이자 ‘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5분 독서 생활권 구축, 24시간 도시 서재 운영, 문화창의제품 개발,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의 변모 등 현대 도서관은 디지털 물결 속에서 문화와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공간 경험을 제공하며 공공문화 봉사의 활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시대 사회의 리듬이 빨라지면서 앉아서 차분히 책을 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현실을 직시하는 동시에 방향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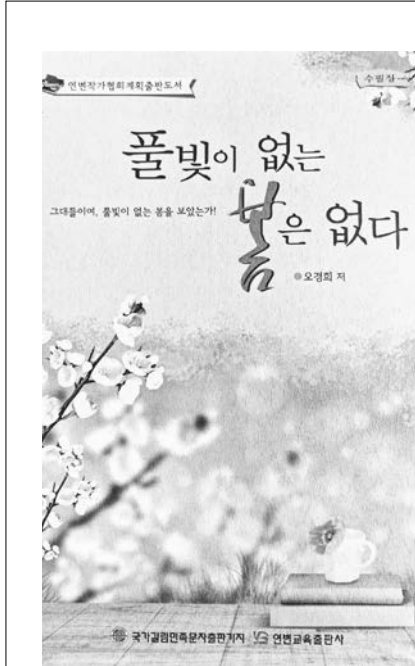
“책향기는 하나의 분위기이다. 디지털 독서와 전통 독서를 결부시켜야 하며 우리의 본질과 소양을 지켜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보다 많은 일반 시민들에게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서관에 들어가 책장을 펼치고 잔잔한 서책 향기에 젖다 보면 종이 속에 흐르는 ‘몰입의 순간’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디지털+전통, 서로를 보완하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

도서관은 한 국가의 문화 발전 수준을 가능하는 중요한 척도이자 공공문화 봉사를 공급하는 중요한 담체이다. 도서관은 민족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길러내며 언제나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도서관의 문을 한번 열어보자. 그곳엔 책장 너머의 잉크 향기만이 아니라 지식을 사랑하고 문명을 갈망하는 한 민족의 성실한 자세, 과거를 대하고 미래를 응시하는 진지한 마음이 함께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 인민일보



[추천도서]

《没有光的春天》

오경희작가의 두번째 수필집 《没有光的春天》 출간식이 지난달 24일, 연변단풍수필회의 주최로 연길시한성호텔에서 펼쳐졌다.

연변작가협회 계획출판항목의 지원으로 연변교육출판사에 의해 출간된 수필집 《没有光的春天》는 ‘서로 다른 돌이 돌담을 쌓는다’, ‘꽃빛생각’, ‘꺾인 꽃이 아파한다’, ‘핑크색 점 하나로’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수필집은 일상 속에서 얻은 삶의 지혜, 깨달음, 인식, 교훈, 감사 등을 담았으며 평범한 일상에서 철학적인 시선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대상에 대한 본질과 그 너머를 저자만의 시선과 해석을 통해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오경희는 “나의 꿈을 향한 끝없는 노력과 도전,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

서 수필집 출간을 계기로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세상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956년 김림성 불정시 태양에서 태어난 오경희는 연변작가협회 회원이며 《김림신문》 두만강문학상 수필 본상, 《연변문학》 문학상 수필 본상, 《연변일보》 CJ 문학상 대상, 《송화강》 수필문학상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김태국기자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독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독서를 이야기하지만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서를 강조한다. 독서가 인생을 바꾸어놓을 수 있는 수단이자 방법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엔 다들 동의하지만 정작 독서를 꾸준히 하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독서는 지식의 재료만 줄 뿐 그걸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건 사색의 힘이다. 그렇다면 아래 소개하는 독서 명언들을 함께 읽고 자극을 받아보자. 더불어 이제 막 독서를 시작했다면 독서 명언들을 되새기며 힘을 보태보아도 좋을 듯싶다.

1. 처음 책을 읽을 때에는 한 사람의 친구와 알게 되고 두번째 읽을 때에는 옛친구를 만난다. - 중국 속담
2. 독서란 자기의 머리가 남의 머리로 생각하는 일이다. - 쇼펜하우어
3. 나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좋은 책을 읽는다면 마법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 조앤 K. 롤링 (해리포터 저자)
4. 남의 책을 많이 읽어야. 남이 고생하여 얻은 지식을 아주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 소크라테스
5. 책은 어떤 사람에게는 울타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다리가 된다. - 레미 드 구르몽
6. 독서는 비용이 들지 않고 독서하면 만배의 리익이 있다. - 왕안석
7. 사람의 인격은 그가 읽은 책으로 알 수 있다. - 스마일즈
8.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 마크 트웨인

/ 종합

